

민주당 VS 무소속 '무주공산' 선점 경쟁

■나주시장 입지자

'3선' 도전을 노리던 신정훈 나주시장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나주시장 선거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선두를 달라오던 신 시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무주공산'을 노린 후보 간 각축전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전 양상이다. 현재 차기 시장 출마 예상 후보군은 민주당과 무소속으로 나뉘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강인규 나주시회의 의장, 임성훈(주)위탁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이길선 전 나주시회의 의장 등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벤처협회 회장을 지낸 임 대표이사는 지난달 출마 선언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갖고 '바람불어'에 나서고 있다.

임 대표는 특히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부각시키며 중앙당 주요 인사

들의 지지를 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강인규 나주시회의 의장, 임성훈(주)위탁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이길선 전 나주시회의 의장 등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벤처협회 회장을 지낸 임 대표이사는 지난달 출마 선언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갖고 '바람불어'에 나서고 있다.

임 대표는 특히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부각시키며 중앙당 주요 인사

■나주시장 입지자

					
강인규(55)	김대동(64)	이길선(59)	임성훈(50)	최동원(44)	홍석태(58)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
나주시회의의장	전 나주시장	전 나주시회의의장	주위탁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에이비에스 농어민 방송 대표이사	전남도청 건설방재국장

(가나다 순)

농협과 시의원을 오가며 누구보다 지역과 농촌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자평하며, 일찌감치 나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

강 의장은 "무소속 단체장이 나주를 이끌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많았다"면서 지역화합과 미래 나주를 이끌어갈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4선의 시의원과 4년간의 나주시회의 의장을 역임한 이 전 의장도 풍부한 의정경력과 지역에서 30여 년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해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나주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와 영산강 개발, 마한문화권 형성을 나주발전의 3대 축으로 삼고, 각 읍면동 특화작물 육성을 해나갈 것"이라며 주민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들과 맞설 무소속 후보군으로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대동 전 나주시장과 최동원 에이비에스 농어민방송 대표이사 차기 시장직을 노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신정훈 시장과

강인규·임성훈·이길선 '경험·인맥 풍부' 공천경쟁 돌입

김대동·최동원 무소속 출마...홍석태 도전 맨 다크호스

맞붙어 낙선한 김 전 시장은 또 한번 민주당 공천을 꿈꿨지만, 경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에게 반발해 '탈당'이라는 선택을 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지지자 1천여 명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나주발전을 위해 영산포구 개발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그동안 시정운영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쏟아냈다고 무소속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최동원 에이비에스 농어민방송 대표이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던졌다.

최 대표는 "대표적 농업지역인 나주가 시장개방 등 농업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민들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농민의 소득 증대 없이는 나주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나주농업 회생을 기치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 대표는 '농민소득 2배 증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쌀·축산·배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실시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농가 복합영농 유도 및 지원 ▲일본 등 해외시장, 국내 대형 유통점과

의 농산물 판매 계약 추진 등을 세부 실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대표는 농민단체, 농업협동조합, 농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 전 시장이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는 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째는 신 시장이 자신의 부인 주향득씨를 대타로 출마시킬 가능성이 있다. 당초 부인을 내세우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던 신 전 시장은 지지자들의 요구로 이 문제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전시장의 고려대상에는 홍석태 전남도 건설국장과 이광형 전 나주 부시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나주 부시장을 역임하며 신 시장과 호흡이 잘 맞는데다 모두 고향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국장은 현재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 시장 측의 '부름'이 있다면 공직 사퇴시한인 4월 극적으로 출마선언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광형 전 부시장은 "시민들이 찾아준다면 관한대행 경험을 토대로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쟁점&변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신정훈 전 시장의 움직임과 의중이 오는 6월 치러질 나주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 전 시장과 그의 지지세력인 농민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타'후보를 내세울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다. 지역정가에서는 '대타'후보 출마를 확신하고 있다.

신 전 시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부활'을 자신하며 '3선'을 준비해 온 만큼 기존의 지지세력과 그동안 담아놓은 탄탄한 지지기반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대타' 인물들도 벌써 지역민들의 입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신 시장의 부인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 시장이 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다 장성과 화순군처럼 부부·형제 간 군수 '자리 물림'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홍석태 전남도청 건설국장

① 신정훈 '대타 후보' 내세울까

② 민주당 8년만에 깃발 쫓나

③ 최 인기 국회의원의 복심은?

물이 줄기차게 거론됐지만, 아직 윤곽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을 대신할 '제3의 인물'이 누가 될지가 이번 나주시장 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무소속인 신 전 시장에 연거푸 2번씩이나 선거에 패한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으로선 강력한 무소속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이 시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인 최 인기 국회의원으로

도 2년 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주당 후보를 앞세워 지지기반을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장 선거는 신정훈 전 시장, 최 인기 국회의원의 측이 각각 후보를 내고 경쟁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기에 김대동 전 나주시장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도의원 입지자

2명의 도의원을 뽑는 나주시는 현역의원 등 7명의 후보자가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각 선거구별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맞서고 있어 나주 도의원 선거도 나주시장 선거처럼 민주당 대 무소속 후보들의 불꽃 튀는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현역 의원 모두가 '재선'에 나서고 있어 신·구의 대결도 불거진다.

제1선거구(남평읍, 다시·문평·노안·금천·삼포면, 송월·금남·성북동)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기병 전남도의원과 김재역 나주시철도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이민준 전 전남도의원과 이응범 나주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이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전남도의회 영산강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병 의원은 나주 발전의 전기가 될 혁신도시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동신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재역 상임대표도 지역에 '젊은 일꾼'이 필요하며 출마표를 던졌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기병 의원과의 민주당 경선 대결에서

혁신도시·영산강 살리기 쟁점

2개 선거구에 5명 '신·구대결'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재역(만·40)	나주시철도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기병(만·54)	전남도의원
	이민준(만·47)	전 전남도의원
	이응범(만·45)	나주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2	김옥기(만·51)	나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김용래(만·58)	민주당 나주시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나홍석(만·59)	전남도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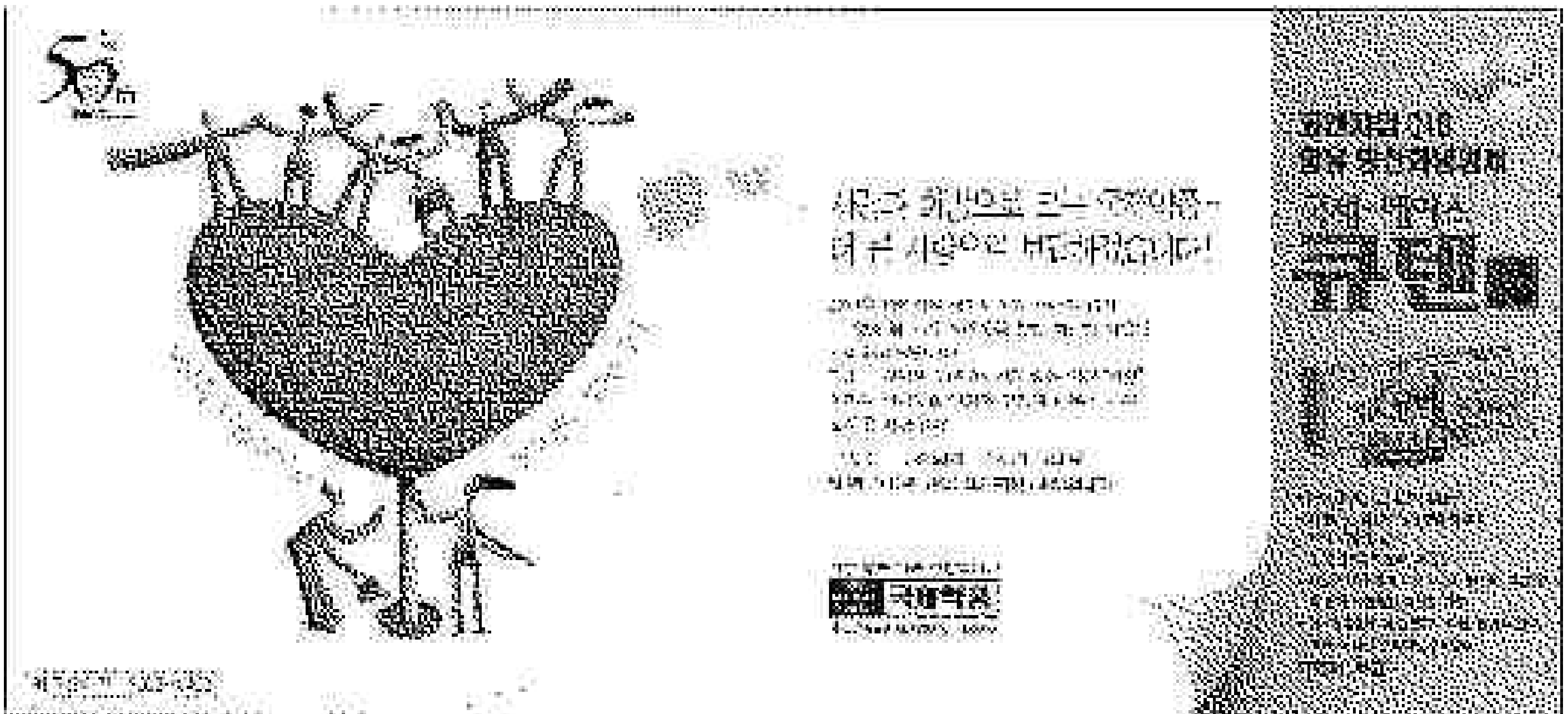
민주당에서는 김옥기 나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김용래 민주당 나주시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나 의원은 지역민의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재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김옥기 사무국장은 20여 년간 광주일보와 무등일보 주재기자로 활약하면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역전문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일꾼이 되겠다고 나섰다.

지난 1991년, 1994년, 2006년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용래 위원장은 24년간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으로, 지역주민에게 마지막 봉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광주광역시... (Advertisement text describing local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Gwangju' and 'Gwangju' brand items.)